

자연보호운동 유감(有感)

소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도시의 겉모양만으로도 알수가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도시가 전적으로 인공적인 것으로만 발전되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선진국들의 도시는 그저 고층 건물과 최신의 차량들이 즐비한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세계의 우수한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그것들은 차라리 모두 자연과 인공의 조화, 전통미와 현대미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문명의 조화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번잡한 네거리 한두개쯤 지나면 거기엔 넓직한 공원이 있게 마련이고 그곳에는 또 운치있는 가로등과 깨끗한 벤치가 있으며 한가로운 노인들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앉아 있는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그 자연과 인공적인 것의 합미를 통해 인간 특유의 아름다운 감정이랄수 있는 향수(乡愁)속에 늘 젖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후진국 도시들을 가보라.

하늘은 온통 어둡잡은 공장 연기들로 회색빛이고 몇그루 가로수는 그 드문 드문한 잎사귀마저 무거운듯 지쳐있는 상태다.

명분(名分)만의 손바닥만한 공원은 어느새 고층건물 공사장으로 변해 버리기 일쑤고 행인은 어디 가까운데 맑은물 한모금 마실데가 없다.

왜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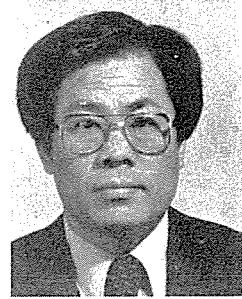
이것은 단지 한쪽이 잘살고 다른 한쪽이 못사는 생활형편 때문일까?

문명은 본시 자연을 공략해서 얻어진 산물(産物)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인류역사를 순전히 인간이 자연과 싸워온 흔적들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문명세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예컨대 자연 그대로의 원시사회가 아니고는 자연이 인공적인것을 앞지르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선진국들은 도시에서 오히려 자연을 발견하게 되는

□… 결국 문명은 자연과 싸운다거나 그것을 쳐이김으로서 얻을수 있는것이 절대로 아니며 그것은 차라리 그 자연을 보호 육성함으로서만이 이룩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될뿐이다.□



맹 광 호 <카톨릭醫大교수>

샘이니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결국 문명은 자연과 싸운다거나 그것을 쳐이김으로서 얻을수 있는것이 절대로 아니며 그것은 차라리 그 자연을 보호 육성함으로서만이 이룩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될뿐이다.

이름있는 인류 학자나 민속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전통적 한국인의 자연관은 놀랍게도 순환론(循環論)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일체 사상과 나아가서는 종교적 도덕적 자세로 자연을 대해 왔던걸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인간을 언제나 자연 위에 두는 차별사상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보호 운동을 이런 정신과 관련하여 볼때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을 따르지 못할 운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행정적) 사회적 제도의 합리성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전래의 아름다운 자연관을 일깨우는 일이 중요하다.

저항없는 국민적 교육제도와 사회적 규제의 합리성—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 선진국 사회가 가장 두드러진 것중의 하나인 것이다.

가령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는 규제는 연탄같은 대체 연료(燃料)를 충분히 구할수 있는 경우에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임이 그 좋은 예다.

도시 농촌 할것 없이 요즘 자연을 보호하자는 뜻말이나 구호가 마치 유행처럼 흔하게 널려 있다. 이런 일의 근본 취지나 목적이 나뉘지 않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집더미만한 자연보호 대형간판 하나를 볼때마다 문득 이것을 만드는 돈이나 아마 튼튼한 쓰레기통 백개쯤은 만들어 여기저기 공공장소에 설치할수도 있을 것이며 한번 시가행진하고 나서 버리는 머리 수건이나 완장(腕章)을 만드는 돈이면 오물을 토해내는 깨진 하수구 하나쯤은 새로 만들어 키울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덧없이 안타까운 마음마저 가져본다.